



KB국민은행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 초청 문화체험' 행사
KB국민은행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모산초등학교 학생 23명을 초청해 지난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 초청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서울 문화체험은 서울 왕래가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KB국민은행

KT&G, 사진작가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제 12회 KT&G SKOPF'

KT&G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사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KT&G SKOPF'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KT&G SKOPF'는 가능성 있는 사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8년부터 11년 동안 총 39명의 작가를 발굴했으며,

최종 작가 13명의 개인전 개최와 작품집 발간을 지원했다.

이번 제 12회 'KT&G SKOPF'는 1차 포트폴리오,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6월에 '올해의 작가' 3인을 발표한다. 올해의 작가에게는 각각 1000만원 상당의 작품제작 지원과 6개월간의 멘토링이 제공된 후, 오는 12월 공개 포트폴리오 심사로 '최종 작가' 1인이 선정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티브로드, 전국 11개 다문화센터에 서적 지원
티브로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방송권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서적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티브로드는 올해 영유아교육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초등교과과정에 연계한 학습까지 가능하도록 재미와 교육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적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모든 서적에는 성우가 참여한 음원이 제공된다. /티브로드



대한항공 사내봉사단, 네팔 보육원서 봉사활동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네팔 치투완 지역의 어린이 보육원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대한항공 봉사단원들은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변변한 놀이기구 없이 생활하고 있는 네팔 보육원을 찾아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등 놀이기구를 기증하고 모래 놀이터를 조성했다. /대한항공



스타벅스 코리아, '마이 텀블러 캠페인'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가 8일 오전 서울 스타벅스 더중로 R점 앞 광장에서 환경부, 환경재단과 함께 '2019 마이 텀블러 캠페인'을 개최했다. 박진규 환경부 차관(가운데),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왼쪽),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이 SNS에 환경서약을 인증한 고객들에게 텀블러를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車 튜닝산업 진흥법 통과 시급



김필수의
차 이야기

자동차 튜닝은 나만의 차, 개성이 강한 차 등을 목적으로 일반 양산차를 개조하는 작업을 지칭한다.

자동차 자체가 일반 생활용품을 넘어 신체의 일부처럼 기본조건이 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카 셰어링 등 다양성이 커지면서 120여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과정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자동차 튜닝이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차 튜닝과 소소한 생활튜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분야는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최대 약 20조원, 미국은 약 30조원 시장 창출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 기존 규제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탈착이 가능한 네거티브 정책을 통하여 더욱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적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기조로 인해 자동차 튜닝은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다가 지난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튜닝을 신산업으로 간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기존 규제일변도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 등 활성화에는 실패한 모습이다. 국내 시장 규모도 7년 전 5000억원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다양한 노력도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우선 자동차 튜닝 분야를 제조업으로 산업분류코드를 지정하여 황무지를 우선 개간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고, 튜닝사 자격증 신설 및 시행, 사업자 등록등을 제조업으로 발행하여 일선에서의 먹거리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도움이 없었지만 민간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는 본격적인 토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튜닝법위를 규제일변도에서 풀어야 하는 분야도 많고 아직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한 분야가 많으며, 윈스톱 서비스 제도와 애매모호한 분야의 정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기존 자동차 관리법상 관리사업분야가 비사업종이라, 제조업이라는 큰 범위로 확대되고 튜닝업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서 한계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자

격증 관리와 전국적으로 약 40개에 이르는 대학에서의 튜닝전공과 과목운영 등 다양한 자동차 튜닝분야를 전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관리할 수 있는 기존 법규 체제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운영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이라는 명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희망적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그동안 불모지로 있었던 규제 일변도의 제도를 선진국 모델로 활성화하고 새로운 튜닝업 신설과 관리는 물론 미래의 모빌리티 튜닝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확실한다.

여기에 최근 전기차 튜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흐름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5년 이내에 자동차 튜닝산업 약 4조원 달성과 실과 비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1조~2조원 달성 등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확실한다.

최소한 올해 후반에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새로운 씩이 돌아나면서 우리가 일선에서 느끼는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탄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시기심을 버리고 모두가 합심해야 할 시기이다. /대림대자동차학과 교수

KB국민은행, 글로벌 IB 경쟁력 확보 잔걸음

홍콩·런던 이어 '뉴욕 IB 유닛' 개소
투자자산 발굴 등 신성장 동력 확보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미국 뉴욕 지점에 '뉴욕 투자금융(IB) 유닛'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 런던에 이어 뉴욕에도 IB 유닛을 개설해 선진국 시장의 비즈니스 라인업을 확충하고, IB 영업의 지역별 허브 역할을 수행해 그룹차원의 IB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오보열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부행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김성욱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 정상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 유창민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뉴욕 IB 유닛의 개소를 축하했다.

'뉴욕 IB 유닛'은 미주시장에서 속도감 있는 현지 딜 소싱(투자처 발굴) 채널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



지난 7일 KB국민은행 미국 뉴욕지점에서 열린 '뉴욕 IB 유닛'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류영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 유창민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정상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 김성욱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 송태훈 KB국민은행 뉴욕 IB 유닛장, 오보열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이 글로벌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IB 플레이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KR투자증권 ◇ 신규 선임 △ 프로젝트금융본부 프로젝트금융팀장 박승룡
◆서울대 △ 미술대학장 문주 △ 미술대학교무부학장 차동하 △ 미술대학 학생부학장 김경선

부음

▲ 김만식씨 별세, 김영일·김지수·김덕수(여신금융협회장)·김영선·김두수씨 부친상 = 8일 오전 9시40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02-

-3410-6915.

▲ 이건정씨 별세, 방신례씨 남편상, 이용욱·이동욱·이현숙·이인숙(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경숙(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이경재씨 부친상, 강호훈(썬월드 대표)·이도형(한국콘텐츠진흥원 부장)씨 장인상 = 7일 오후 11시50분께,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20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42-600-6666.

▲ 이순범씨 별세, 이석준(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이대원(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씨 부친상, 진상곤(넥스텍 부장)씨 장인상, 백현주·김혜숙(부산 금정구청 근무)씨 시부상, 정영우(국민연금관리공단 기

금운용본부 근무)씨 처조부상 = 7일 오전 7시36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02-3410-6901.

▲ 정세진(전 아진교통 이사)씨 별세, 정한석(삼성SDS 부장)·정한중(연합뉴스 감사·대명회계법인 부대표)씨 부친상, 구제희(삼성전자 한국총괄 프로)씨 장인상 = 8일 오전 7시40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02-3410-6914.

▲ 임창원 씨 별세 = 임진영·은희·명희 씨 부친상, 윤명철(시사오보 산업1부장) 씨 장인상 = 7일 오후 7시 15분, 경기도 안성 동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10-7757-3813.